

예산삭감·인원감축 논란 목포시향 사태 해결되나

지난달 정리해고 통보 이후 오늘 양측 대표 협상

예술계 “지역 특성 맞게 체질 개선 등 변화 필요”

목포시립교향악단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채 장기화되고 있다.

목포시와 교향악단 단원들이 지난 달 25일 정리해고 통보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회의 자리를 마련해 사태 해결에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 고용노동자 청 주재로 10일 시청에서 시향 단장인 윤진보 부시장 등 실무자와 시향 단원 대표가 만나 정리해고 회피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목포시 6개 시립 예술단체 운영

= 목포시의회가 올해 시향 예산을 40%(5억3000만) 삭감한데 이어 시는 지난달 25일 단원 64명 가운데 27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시향 노조는 “시립예술단체 체질 개선이라는 미명아래 합리적 운영방안을 찾기보다 정리해고를 통해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려는 저의”라고 지적하고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반발하며 ▲정리해고 철회 ▲예산 삭감액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시 공무원과 시향 단원간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상황이 갈수록 악화

되고 있다.

인구 24만명 규모의 중소도시인 목포시는 현재 연간 34억원을 예산을 들여 6개 시립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인구 30만명 미만인 타 지역에 대비하는 2~3개 예술 단을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전체 예산의 44%에 달하는 연간 15억 원의 예산이 시향에 집중돼 있다.

그동안 시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예산 삭감분만큼 근로시간 단축 ▲정기공연이 있는 달은 피해 무급 휴가 실시 ▲희망퇴직 등 방안을 시향단원들에게 제시하고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가진 바 있다.

◇지역특성 살리는 예술단체로 육성=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역 예술계와 시의회 일각에서는 시립 예술단체의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점진적

으로 단체 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6개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은 시 재정규모에 비해 과도할 뿐만 아니라 특정 예술단체에 대한 집중적 투자로 인한 불균형 초래, 음성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에 대한 처리, 지휘자와 단원간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앙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전남도가 ‘국악의 고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도립 국악단을 운영하는 것처럼 단체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목포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임정호 예총 목포지회장은 ‘선(先) 노조 탈퇴, 후(後) 협상’을 제안했다.

임 지회장은 “시향단원은 먼저 노조를 내려놓고 평화적 협상에 임하

고, 관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추경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객원이든 비 상임이든 지휘자를 선임해 그로 하여금 이번 사태를 추스르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방수 시의원(예술계 비례대표)은 ‘총 예술감독제와 사무국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부족한 인원은 비상임으로 가거나, 필요할 때 객원을 데려다 쓰면 된다”며 “시 재정 규모에 맞고 시립예술단의 체질 변화가 절실히”고 말했다.

함인호 시향노조 분회장은 “단원들은 무대로 복귀하고 싶어한다. 예산문제가 원만히 해결돼 하루빨리 원직 복귀해 연주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목포=고구석기자 yousou@



서울서 왕인 문화축제 흥보
9일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 열린
‘2014년 영암 왕인 문화축제’ 흥보
캠페인에서 군민 창작거리극 ‘왕인박사 일본가오’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 왕인 문화축제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왕인박사 유적지 등 영암군 일대에서 개최된다.

/연합뉴스

완도 해조류 박람회 교통혼잡 불편 던다

道, 조사반 구성 주요도로 사전점검 일제정비

전남도는 올해 도내 첫 번째 국제이벤트이자 세계 최초로 ‘해조류’를 주제로 열리는 ‘2014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도내 주요 도로를 일제 정비하고 종합 교통지원대책

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도로사업 추진 및 관리부서를 3개반 24명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박람회에 서해안과 남해안 주요 고속도로, 국도1·2호선, 국도13호선 등 도내 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박람회에 7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조사반의 박람회장 주요 진입도로, 나들목 등의 불편사항 사전 점검을 통해 박람회 개최 전까지 일제정비에 나선다.

도는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관리기관에 개선 협조를 요청, 박람회 방문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박람회장 방문객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완도방면 노선

시외버스를 1일 5~10회 증진 운행하고, 완도~목포간 노선은 목포역(KTX)까지 노선 연장, 완도 내에서 박람회장을 연결하는 순환 셔틀버스는 1일 30대 이상 운행한다.

박람회 기간중 도는 완도군과 유관기관, 운송업체 합동으로 ‘종합 교통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해 교통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게 된다.

오광록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국내 최남단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주요 사찰과 유명 관광지 또는 명산 등 도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것을 대비해 관광지 이정표와 도로 안전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고 디각적인 종합 교통지원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는 ‘바다 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란 주제로 4월 11일부터 5월 11일까지 31일간 열린다.

/윤현석기자 chadol@

담양경찰, ‘사회적 약자’ 인권교육

광주장애인 권리문제연구소 최완우 소장 초청

담양경찰서(서장 박지영)는 최근 광주장애인 권리문제연구소 최완우 소장을 초청해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인권의식 함양’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청문감사관실도 의무위반

사례를 통한 가상 체험학습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강한 담양경찰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담양경찰은 자율방법연합대장과 읍·면별 새마을부녀회장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 부녀 순찰대’ 발대식(사진)을 갖고 생활

범죄 예방강화에 나섰다.

부녀순찰대는 경찰관과 합동 순찰을 벌여 치안의 사각지대에 있는 벌이 가정과 나홀로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활동을 벌이게 된다.

박지영 서장은 “부녀 순찰대는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홍보와 파출소와의 학라인 구축, 가정폭력 등 지역치안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전남도, 주택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1000여 가구에 설치비 5억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은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도민에게 설치비 중 일부를 지

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억원이 늘어난 총 5억원을 주택 1000여 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도에 도비 보조금을, 시·군에 시·군비를 각각 신청했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도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 시군에 일괄 신청하면 되도록 개선했다.

개별 가구에 설치하는 주택지원사업과 10가구 이상(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단위 지원사업’이 있으며, 도내 거주자로서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지방비를 지원한다.

개별 가구에 대한 주택 지원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자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마을단위 지원사업(그린빌리지)은 도가 시·군을 통해 17일까지 접수받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게 된다.

개별 가구에 설치하는 주택지원사업과 10가구 이상(도서지역의 경우

장성 백양 청정 고로쇠축제

22~23일 북하면 남창계곡 일원서

“고로쇠를 마시고 별도 보며
새봄의 정취를 만끽하세요!”

제8회 장성 백양 고로쇠축제
가오는 22~23일 이틀간 장성군
북하면 남창계곡 일원에서 열린다.

장성 백양 고로쇠축제 주진위
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청정 고로쇠!’라는 주제로 공연행사와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주민들은 올해 다채로운 공연 행사와 함께 관광객과 지역민이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차별화와 생산성을 갖춘 축제로 운영해 관광수요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공연행사는 초청가수 공연을 비롯해 고로쇠 음악회, 난타 공연, 청소년 퍼스티벌, 고로쇠 실버마당, 노래자랑 등 다채롭게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모두 가능합니다.

소재본 투자 /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

성공의 비결! 황칠에 투자 하십시오. 투자자 상담 환영!



처음 식당을 창업하시는 사장님

기존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간 맹 문의 061 864 5788

황칠나라 유통
황칠나라(주)